

코스피, 외국인 복귀·대형주 약진… ‘산타랠리’ 기대감 고조

美 금리인하 등 글로벌 증시 훈풍
코스피, 통계적으로 12월 강세장
“이번주 3900~4200선 움직일 것”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하와 단기 국채 매입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면서 글로벌 증시의 훈풍이 국내 증시에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증시 활성화 대책도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불러 모은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한다. KB증권은 내년도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6% 늘어난 40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코스피, 외환위기 이후 12월 지수 상승 확률 59%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환 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2024년까지 27개 연도의 12월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분석해 보면, 16번(59%) 상승했다. 이 기간 12월 평균 지수 상승률은 2.2%였다.

특히 강세장을 보였던 해의 12월 수익률은 통계적으로 훨씬 두드러진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코스피는 전 거래일(4110.62)보다 56.54포인트(1.38%) 오른 4167.16에 마감했다. /뉴시스

1998년 이후 코스피가 연간 기준으로 20% 이상 상승한 해는 총 10번이었는데, 이 중 8번에서 12월이 추가 상승했다. 강세장 해만 따로 평균을 내면 12월 상승률은 6.9%대로, 평년의 3배 수준에 달한다. 올해는 11월까지 코스피가 63.6%, 코스닥 지수는 34.6% 올랐다.

12월 시작 10거래일째인 12일, 코스피가 4200선(종가 4167.16)을 노크하고,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 역시 10만8500원까지 치솟자 개인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산타랠리’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산타랠리란, 12월 25일 성탄절 전후로 해서 연말과 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계절적인 효과인 셈

인데, 성탄절을 계기로 소비가 늘고 내수가 호조를 보이면 관련 기업 매출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다.

◆ 외국인 매수, 정부 정책 기대감

외국인 자금 유입도 빨라졌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3조47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임에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 유인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연말·연초로 예정된 3차 상법 개정안,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등 구조적 개선 기대가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경기 개선 모멘텀

과 금리인하 사이클 속에서 코스피 반등이 지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번주 코스피가 3900에서 42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봤다. 코스피가 최대 4200선에 닿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는 주식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이라며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미래에셋증권, SK, 현대차 등을 관심 업종으로 꼽았다. 이어 그는 “내주 코스피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며 4000선을 중심으로 횡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에서 산타랠리가 실현되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며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유동성 공급 기대는 연말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우상향 기조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12월 금리인하로 유동성 우려를 불식시켰고, 인공지능(AI) 우려도 잦아드는 등 변동성 국면이 진정되고 있다”며 “이달에는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하나증권, 제주 AI 혁신생태계 이끈다

하나증권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모험자본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왼쪽)와 이병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증권

한공회, 창립기념식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1주년 창립기념식’을 열고 회계제도발전에 기여한 인사와 성과 우수 회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기념사를 통해 “회계개혁은 국가적 과제이며, 회계기본법 제정이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은 매우 뜻깊다”며 “감사 시즌을 맞아 과당경쟁과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품질 중심의 수입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계제도발전 공로자 2명, 올해의 기자 1명, 회계제도발전 유공자 7명, 수습공인회계사 성적우수자 17명, 30년 근속자 10명에게 상패와 표창이 수여됐다. ‘2025년도 회계인명예의전당 시상식’에서는 박종석 숙명여대 교수가 ‘회계발전기여상’을 받았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증권 CDP ‘리더십 A’ 획득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미래에셋증권이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Leadership A를 획득했다.

CDP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검토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평가기관이다.

미래에셋증권이 이처럼 높은 등급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권고안을 기반으로 자산에 내재된 기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녹색 금융을 실천해왔으며, 이사회 감독체계 강화 등 장기간 관리 체계와 실행력을 축적해온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고객과 기업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입찰가 유출 의혹 등 공정성 도마 위… 매각 좌초 위기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흥국생명·국민연금, 매각과정 의혹 제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향후 일정 불투명

이지스자산운용 매각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흥국생명의 고소 제기와 국민연금의 위탁자금 회수 검토가 이어지면서, 향후 협상 일정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계 사모펀드(PHF) 할하우스의 이지스자산운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할하우스가 제시한 가격은 약 1조1000억원이다.

그러나 절차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흥국생명은 본입찰에서 약 1조500억원을 제시하고도 탈락했다며, 자사 입찰가가 외부로 유출돼 할하우스가 이



서울 여의도 이지스자산운용 본사 전경. /이지스자산운용

를 바탕으로 가격을 높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 주주 손모 씨와 주주 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연금도 매각 과정에서 위탁자산

보고서 일부가 사전 동의 없이 원매자들에게 제공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국민연금은 실정액·평가액·자산 이슈 등이 포함된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약 2조원 규모의 위탁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매각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일부 자산 이관을 위한 실무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는 지난 12일 입찰문을 통해 “AUM 실사는 기업 가치 산정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글로벌 M&A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사는 보안 가상공간(VDR)에서 진행됐고, 자료 복제나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별 자산정보 대신 전략별 통계 중심으로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했으

며, 실사 참여자들에게는 강도 높은 NDA를 부과했다는 점도 밝혔다.

이지스운용은 지난 9일 국민연금을 직접 방문해 관련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내부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당초 할하우스는 연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내년 상반기 중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적 분쟁과 주요 LP의 회수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금융당국은 현 시점에서 심사 착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흥국생명 고소, 국민연금 검토, 금융당국 입장 등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향후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현재로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감원, 해외 고위험 상품 규제 강화

투자자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해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가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해외 고위험 상품에 접근할 경우 과도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손실 규모는 약 4490억원이며, 나스닥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2020년(+43.6%)과 2023년(+43.4%)에도 손실은 지속됐다. 해외 레버리지 ETP 보유 규모는 2025년 10월 기준 1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추세가 고위험 상품 투자 규제 강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원

금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마진콜(증거금 추가납입 요구)에 즉시 대응하지 않거나 시세가 급변할 경우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레버리지 ETP 역시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복리효과로 누적 수익률이 기초자산 대비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광고 문구나 이벤트에만 의존해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 상품 구조와 위험요인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시행되는 보호장치에 따르면 해

외 파생상품 투자자는 사전교육 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 3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는 사전교육 1시간 이상이 의무화된다. 이는 국내 파생상품·레버리지 ETP에 적용 중인 교육·모의거래 규제를 해외 고위험 상품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해외 고위험 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개인투자자의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절차를 통해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뒤 거래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